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⑯ 선학원과 유교법회

유교법회, 한국불교 지향할 바른 교시

〈遺敎法會〉

2008년 4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는 '조계종 중흥의 당간(幢竿), 41년 유교법회(遺敎法會)를 조명하는 연찬회'를 개최했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의 출범과 그 정체성, 그리고 한국불교의 현재를 점검하고 앞날을 준비하는 초석으로 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었던 자리였다.

日本과의 合邦이란 것이 이루어진 뒤로 한국의 淸淨한 僧風은 자꾸 시들어만 가고 있지마는, 그래도 이 가운데 애써 한국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高僧들이 있으니 이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아보자.

(1941년 유교법회회의록(遺敎法會會議錄) 중에서)

법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다. 1941년은 일본이 전쟁준비를 한창 서두르고 있었던 시점이다. 우리 불교계는 사찰령을 근간으로 한 식민지불교정책이 전개되었고, 일본불교의 유입으로 대처식육(帶妻食肉)의 풍조는 더 이상 새로운 관심사가 아니었다. 때문에 산중공의제나 원융살림 등 전통불교의 양법미제(良法美制)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다. 이와 같은 삭막한 상황 속에서 본분사를 지키고 사는 고승(高僧)을 초청하자는 자리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승을 한자리에 모아보자는 이 자리가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석연치 않은 점도 있다. 예컨대 총독부 학무국장 도미나가(富永)가 춘원 이광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불교가 이같이 무질서하고 지리멸렬해서는 안 되겠다. 교단을 맡아서 잘 해나갈 사람이 없겠는가. 지금까지는 교종에 교단을 맡겨왔는데 선종에 그런 인물이 없겠는가. 선종의 고승들을 만나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강석주 · 박경훈 공저, 〈불교근세백년〉, 145쪽에서)

이 말을 들은 춘원(春園)이 사촌형인 운허(耘虛)스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스님의 말씀을 들은 보산(寶山) 스님은 학무국장의 본심을 알고 난 이후에 개최해도 늦지 않다는 뜻을 전했고, 급기야 두 스님은 도미나가 총독부 학무국장을 만났다. 그러나 학무국장은 두 스님에게 고승법회(高僧法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춘원에게는 비용까지 전담하겠다면서 이 법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스님들께는 금시초문이라는 뜻을 전했던 것이다.

발단은 총독부 학무국장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명분과 의미는 남다른 것이어서 두 스님은 총독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승법회를 개최하고자 뜻을 모았다. 기록에 의하면 운허스님은 직지사로 청담(淸潭)스님을 찾아갔고, 이어서 만공 · 박한영 · 효봉스님을 만나 상의하였다. 그러나 준비는 쉽지 않았다. 당시 선학원과 대립상태에 있었던 교무원측 인사와 31본산 주지들이 크게 반대하고 일어선 것이다. 우선 운허스님과 청담스님이 종로경찰서에 여러 차례 불려가 법회를 열지 말라고 갖은 협박과 회유를 받고 있었다. 또한 화계사(華溪寺)나 봉선사(奉先寺)에서 개최하고자 집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각하를 당했다. 또 한 가지는 '고승법회(高僧法會)'라는 명칭에 대해 교무원 측이 비난한 것이다.

이 모임 중에 한두 사람의 고승은 있을 것이므로 고승법회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굳이 비난을 받아가면서 고승법회라 해서 말썽을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은가. 우리가 부처님의 유지를 받들어 행하는 무리이므로 그 점을 따서 유교법회(遺敎法會)라 함이 좋겠다.

당시 법회명칭에 대한 서응(瑞應)스님의 해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자.'는 보다 더 큰 의미가 정립되는 순간이었다.

유교법회(遺敎法會)는 이렇게 해서 1941년 2월 26일부터 10일 간 선학원에서 개최되었다. 당시의 회중은 만공 · 한영 · 묵담(默潭) · 청담 · 무불(無佛) · 적음(寂音) · 자운(慈雲) · 동산 · 효봉(曉峰)스님 등으로 당대의 노장년층 선장(禪匠) 40여 명이 운집하였다. 법회는 박한영 스님의 유교경(遺敎經)강설을 중심으로 만공스님과 동산스님이 번갈아 설법하였다. 범망경(梵網經) 강의도 진행되었는데, 당시 두 경전을 강설한 것은 법회개최의 목적이 불조혜명의 계승을 전제로 한 한국불교의 청정교단 수호에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법회에서는 대승계를 강설한 것 외에도 우리나라 조계종의 종지를 설하기도 하였다.

유교법회는 〈범망경〉과 〈유교경〉을 강설하고 자비참법을 실시하면서 현재 조계종이 지향할 바를 교시한 것이라 하겠다. 이는 가야총림의 창설과 1947년 봉암사 결사로 발전돼 청정교단 수립의 길잡이가 됐다. 하지만 1921년 창건된 선학원의 활동이 없었다면 한국불교가 조계종으로 활로를 개척할 수 없었을 것이다. 조계종이 현금의 대종단으로 결속되고 전법을 계승하고 불조혜명의 본지를 선양하는 직지인심(直旨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인 선지(禪旨)의 당간을 휘날리는 것도 선학원으로부터 연유한다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선학원 창립, 선우공제회 결사, 유교법회 개최는 조계종이 교단정화로 나아가는 데 기초가 됐다. 이는 현재도 면면히 이어져 지난 2007년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법회와 수행종풍 진작을 위한 대중결계와 포살 갈마로 구체화되고 있다.

목정배 선생이 2008년 유교법회(遺敎法會)를 조명하는 연찬회에서 주장한 내용의 일부이다. 유교법회를 전후한 일련의 선학원 활동이 현재 한국불교의 이정표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발표자였던 당시 해인사 승가대학장 법진스님은 유교법회 당시 참여했던 스님들에 대해 "유교법회에 동참한 독신수행승들은 일제 때는 물론 해방 후 조계종의 형성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62년 통합종단이 출범할 때까지 비구승 중심의 여론을 주도하거나 종단 주요 기구를 운영하는 스님들은 유교법회 동참자들이었다."고 했다. 결국 독신 비구승과 선 수행 전통을 계승하고 살려낸 유교법회 참석자는 당시 불교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율장 정신과 수행자의 청정성, 경건성, 위의(威儀) 회복을 대안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유교법회가 근현대한국불교사에서 일정한 위상을 지니고 있는 점은 또 한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보조장삼(普照長衫)을 입었다는 점이다. 당시 근래에 볼 수 없었던 선장(禪匠)들의 법회를 본 신도들이 다투어 공양하겠다고 했으나 정해진 10일로는 신도들의 요청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비단으로 장삼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다. 스님들이 무명으로 해달라고 하자 40여 명의 장삼을 지을 무명이 없어서 인천까지 가서 사오기도 했다. 당시 범술(凡述)스님이 이왕이면 이 기회에 보조장삼으로 지어 입는 것이 종겠다는 제의가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석주스님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스님들의 장삼은 팔이 도포와 비슷하게 생긴 두루마기식의 장삼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보조장삼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진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스님은 각종 문헌을 참고하고, 직접 가위를 들고 무명으로 마름질을 하는 등 특이한 재질을 보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고 한다.

유교법회 이후 스님들은 선학과 계율의 종지를 선양하고자 계속해서 범행단(梵行團)을 조직하고, 독신 비구승을 중심으로 선학원에서 유마경(維摩經)강의를 지속하자고 결의하기도 했다.

결국 1941년 선학원에서 열린 유교법회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우리 불교의 마지막 민족적 성격의 법회로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그 전통을 회복하자는 의미가 절실하게 담겨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자'는 법희의 취지는 한국불교의 영원한 화두가 될 것 같다.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1941년 2월 26일부터 10일 간 선학원에서 열린 유교법회. 선사 40여명이 운집한 이 법회는 한국불교가 가야 하는 지향점을 그대로 보여준 법회였다.

1941년 2월 26일부터 10일 간 선학원 개최… 선사 40명 운집 경전 강의 등 청정성 높인 계기 보조 장삼 첫 착용 역사적 의미 "불조혜명 잇자" 영원한 화두

2008년 열린 유교법회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 위해 개최한 유교법회 관련 학술 연찬회의 모습.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